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아티스트 토크
한정림 <잠에 숨겨진 Hidden in slumber>

일시 : 2015년 3월 4일 (수) 오후 4:00 - 5:30

장소 :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기록 : 윌링앤딜링

한정림 : 안녕하세요. 제가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지금까지 했던 작업들을 돌아보면 어떨까란 생각으로 이번 전시는 작은 회고전처럼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입체나 설치 작업을 주로 해왔지만 이번 전시에서는 이미지 위주의 작업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과거 제가 적어두었던 꿈에 대한 이야기와 메모들, 그것을 바탕으로 제가 만들었던 이미지들과 일상에서 캡처한 이미지들을 위주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다양한 작업들을 하는데, 크게 보면 '리크리에이션(recreation)', '기빙 프로젝트(giving project)', '리시빙 프로젝트(receiving project)', '웹 인스톨레이션(web installation)'이라고 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미술도 하였었는데, 제작년 계룡시 금안공원에 했던 <성수목>이라는 작업으로 한국의 별자리를 응용하여 작업 하였습니다. 별자리 자체가 자연 현상이지만 사회와 결부시켜서 작업을 한 것입니다. 저 작업은 갯도 지도를 혈류에 접목시켰는데, 저는 궤적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기 걸려있는 작업은 <매미>라는 작업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폐쇄형 술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 중에서 '베니타스'에 관련된 이름들만 걸러내어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아름다움을 파는 가게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베니타스와 관련이 많음을 느꼈습니다, 이 PT 화면의 작업은 공공미술 프로젝트인데, 이때 갯도에서 탄광에서 전시를 한 작품입니다. 그때도 갯도 지도를 구해서 궤적이란 것에 관련시켜 거기서 일했던 인부들의 오마주 형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바닥에 그려진 선은 갯도 지도에서 갯도를 나타냅니다. 갯도 지도 자료를 관련시켜서 실제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구 설치인데 거의 폐광된 곳이라 보시면 됩니다.

제가 또 많이 하는 작업 중에 웹 인스톨레이션이 있습니다. 이것도 거미줄로부터 시작한 것인데, 이 역시 궤적에 관한 것으로서 크리스탈로 작업한 것도 있습니다. 이 화면은 동대문 DDP가 생기기 전에 디자인 갤러리에서 했던 작업입니다. 한강 은백색이라고 해서 서울색이 있는데, 서울색 중에서 저는 이 한강 은백색을 맡아서 작업을 했습니다. 사회의 복잡성 자체를 그리게 됐고, 그리고 제가 교점과 링크라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그것을 걸어로 보기에는 한강의 은은한 흐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느낄 수 있도록 거미줄로 시작한 작업인데요. 과거에 했던 작업들이 등장합니다.

마치 패션쇼처럼 스와로브스키도 새 물건이 나오면 발표회를 하는데, 이것은 s/s2014 작

업입니다. 요즘 누화동이 많이 회자가 되고있는데, 예전에 대오서점 옆에 아주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은 '로스트룸'이라고 하는 아트 스페이스였는데, 그 공간에 장소 특정적 작업을 했던 거였죠. 과거에 제가 20대 때까지 착용했던 악세서리 같은 것들을 모아서 샵들리에를 만든 후에 전시 내내 불을 켜서 밝히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 작품의 제목은 <증발된 추억>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보고 굉장히 슬퍼 보인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전혀 다른 감상을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다른 느낌을 받은 것이지요. 이것은 작년에 했던 <꿈을 엮다>라는 작업입니다. 작년에 깃털을 엮어서 만든 큰 설치작업을 했었는데, 꿈 자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유하는 환영 그 자체를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날개 자체가 꽃잎이 되도록 꽃가지를 연상하는 것을 의도했습니다. 그게 이제 거꾸로 매달려서 만들어지는 어떤 꿈이라는 환영 자체를 만들어 보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사람에 따라서 상상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개인적인 어떤 꿈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미지를 통해서 제시하고 또 받아들이는 관객들이 어떻게 해석하는냐 하는 것은 관객의 몫입니다. 예전에 팩토리에서 사이트 스페시픽한 작업을 했었습니다. 여기도 웹 작업을 했었지요.

처음에 제가 웹 작업을 시작한 곳은 연희동이라는 공간이었는데, 원래 있던 샵들리에에 제가 개입을 해서 관계를 맺은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 아래의 구석진 공간을 드러내기 위해 스파이럴 계단에 작업을 했었구요. 이것은 어떤 스토리가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종로에 굉장히 오래된 '반줄'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 있던, 화재가 나서 한 번 불타버린 하프에 아트워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겨서 이 작업을 하게 됐었어요. 불타버린 하프를 어떻게 아트워크로 만들까 하다가 레이스라는 매체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것을 스탠실이라는 방법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레이스 무늬로 덮었던 작업입니다. 드로잉 같은 경우는 불타버린 하프에서 나온 불순물로 저렇게 붙여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타버린 시간, 타버린 자욱들을 그라데이션 표현을 통해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서 스탠실이라는 방법은, 하나하나 다 다른 그림이 되는 어떤 패턴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방법인 것 같아서 연구를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엮는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 했던 종이 작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버리는 도록들을 어떻게 다시 살리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보다가 스케일이 크게 작업을 한 번 해봤어요. 그때부터 바벨의 도서관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 작업에도 바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어떤 문자와 이미지들을 가독할 수 없지만 그것을 다른 이미지 또는 다른 차원이 것들로 만들어서, 보는 사람마다 새로운 풍경을 볼 수 있도록 의도한 작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기가 나는 것 같다고도 하구요. 그 안에서 어떤 다른 의미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김인선 : 금방 저 화면의 작업에 부착된 종이 조각들은 한정림씨의 개인전에서 제가 봤던 작업과 비슷한데, 저것도 앵무새가 자른 종이인가요?

한정림 : 이것은 일정하게 핸드 웨어로 작업을 했습니다. 앵무새 작업은 그 이후에 발견해서 다시 작업을 하게 되었고요. 이것도 일본에서부터 모았던 영화 전단지를 이용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모았던 영수증을 이용한 작업이구요. 그리고 제가 앵무새를 키운지 4년 되었어요. 저는 수집한 것들을 이용한 저같은 작업을 꽤 오래 전부터 했었는데, 제가 키우던 앵무새가 제가 작업한 방식과 같이 종이를 자르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간격이 똑같아요. 핸드 웨어와 간격이랑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앵무새가 자른 그 종이를 다 모았어요. 그것을 다 모아서 앵무새의 작업만으로 한 번 개인전을 했었어요. 이것이 그 작업인데요. 앵무새의 행위는 저와는 또 다른 시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자르는 행위는 본인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신의 몸에 꽃기도 하면서 본인의 몸을 부풀어 보이게 한다든지 하는 행위가 앵무새의 장식성과 연결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일본의 교통 시스템의 허점을 시각화했던 작업인데요. 남은 티켓을 모아서 진행한 작업입니다. 이것도 종이 작업의 하나인데, 원형자로 책을 잘라서 만든 작업이구요. 그리고 또 버려진 것들에 대한 프로젝트 중 하나는 이 커피 작업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마시고 난 커피필터를 모아서 그리고 그것을 다시 말려서 작업 재료로 쓰는데요. <검소한 블로섬>이라는 작품은 커피필터를 다 모아서 꽃의 이미지로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낙엽처럼 보인다고도 하고요. 이것은 이천년대 초반 작업입니다. 커피 가루를 다 모아서 주먹밥처럼 만들었던 작업이에요. 사실 커피를 이용한 작업을 한 이유는 향도 굉장히 이유가 컸어요. 사람들이 관람을 하면서 그 방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힐링을 받기도 했구요.

요즘은 잘 안하고 있는데 남에게 선물을 주는 기빙 프로젝트도 진행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과 같은 것들을 작업을 한 다음에 전달을 해요.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집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위치에 그것을 놓고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다시 저에게 주고 제가 그것을 받아서 프린트해서 전시하는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이것은 제가 받은 생일카드들을 다 모아서 만든 작품입니다. 요즘엔 이런 편지를 주고받지 않아서 아마 젊으신 분들에게는 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작업은 이렇고요. 지금 전시를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김인선 : 이번 전시에서는 시리즈가 나눠져 있잖아요. 프레임마다 조금씩 다른 내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에 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정림 : 이쪽 벽면의 사진 작업들은 제가 다 아이폰으로만 찍은 사진들이에요. 편집한 것도 있고, 편집을 안 한 것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마주하는 굉장히 현실적인 것들도 있고, 꿈에서 보는데서 비현실적인 이미지도 갖고 있고, 그러한 여러 이미지들은 쪽 모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웹 작업 같은 경우는 사회의 어떤 복잡성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썩은 과일 같은 경우는 학교를 가는 길에 저런 오브제들이 모여 있어서 찍게 되었어요. 어떤 베니타스의 이미지도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인 이미지는 베니타스

적인 페인팅에서 나오는 개념들을 베이스로 작업을 했습니다.

김인선 : 베니타스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정림 : 베니타스 페인팅은 현대 작품 중에서 에피메럴 이펙츠(ephemeral effects)라고 해서 삶과 죽음, 끝이 있는, 영속적이지 않다는 주제로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유행한 정물화를 말하는데요. 그 정물화에 해골이라든지 레몬이라든지 생선, 과일, 자, 책, 깃털, 거품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등장하는데, 매우 한시적인 어떤 의미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영속적인 것은 없다는 의미로서의 허무함, 공허함을 주는 정물화들을 그렸었죠. 많은 작가들이 베니타스 개념을 자신의 작업으로 대입해서 작업을 했었는데, 저같은 경우는 매우 아름답지만 허무하고, 짧은 우리 인생에서 아름다움과 멜랑콜리가 섞인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번에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김인선 : 일본에서 디자인 공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정림 : 디자인 과인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조각적인 요소로 작업을 했습니다.

김인선 : 혹시 디자인적인 요소가 영향을 주었는지요?

한정림 : 제 작업을 잘 아시는 분은 제 작업에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장식적인 요소를 도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인테리어 쪽을 연구하다 보니까, 벽지가 상당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프레임이 부분에 조금씩 도입을 했죠. 그리고 사실 제가 앞으로 계속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한국적인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고민이에요. 저는 한국적인 것과 관련하여 '뜬보잡'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뜬보잡'이라는 용어를 적용하여 약간은 키치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작업을 앞으로는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인선 : 설치 스타일로 구현되나요? 아니면 사진과 같은 스타일로 구현되나요?

한정림 : 다 하겠죠. 이번에는 이미지를 한 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그림을 좀 더 열심히 그려볼까해요. 계속 만드는 작업만 해와서요. 지금 전시 돼있는 것 중 과거에 썼던 메모들은 정말 유치한데요. 예전엔 정말 꿈을 열심히 기록했었는데 요즘에는 게을러져서 그런지 잘 안하게 되요. 그래서 과거에 기록했던 메모들이 많습니다.

김인선 : 저렇게 이미지와 꿈에 대한 메모를 조합한 것들은 이번 전시를 위해 조합한 것인가요?

한정림 : 네.

질문자1 : 실제로 디자인과 학생들이 과제를 할 때 이와 비슷하게 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게 요즘 트렌드인지, 아니면 세대가 그런 현상을 가진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정림 : 디자인과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작품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많은 디자이너들이 그렇게 작업을 하고, 그것이 약간 트렌드처럼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자1 : 일상이나 기록, 흔적, 그런 파편들을 집적해서 다시 되새김질하는 작업 방식에 그래픽적인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것들을 실제로 잘라서 오려붙여서 집적하는 방식등이 요즘 트렌드와 굉장히 유사점이 있습니다.

한정림 : 현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작업들이 집적되고 반복되고 있다고 봐요. 일상적인 어떤 오브제라든지 복수의 어떤 것들에 관해 많은 작업이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선 : 방금 질문하신 분은 그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자인을 전공했고 디자이너로서 활동하는데 갖고 있는 장점이 있을텐데 이상하게 실용적이지 않은 전시를 할 때 퀄리티가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종종 했어요. 디자인과 파인아트를 딱 구분하지 않은 다수의 전시들 말이에요. 그런 전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정림씨 작가 작품이 아니라,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들의 전시 형태를 볼 때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질문자1 : 제가 볼 땐, 조형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뀌는 것 같아요. 하나의 독립적인 것으로서 형태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주재환 작가의 경우에도 버리는 쓰레기가 자기만의 또 다른 형태로 또 다른 이미지로 만들어진다고 봐요. 하나의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으로의, 작업의 흔적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으로서의 작업이라고 보죠. 한정림 작가도 과정으로 보여지는 것에 만족하시는지, 그것이 목적인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김인선 : 그것이 파인아트에서는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디자인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질문자1 : 디자이너들은 워낙 목적의식이 강해서 거기에 딱 맞춰야 하는데 그런 의도의 작업이 너무 많이 보여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영수증이라든지 티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모아서 그냥 쪽 쌓아놓고 그것을 작품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파인아트 쪽에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좀 해석이 안돼요.

질문자2: 정확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과정인지 결과물인지, 과정으로서의 작품인지 결과를 목적으로 한 작품인지, 어떤 무브먼트에 대한 결과물로 작품이 나온건지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 잘 생각해보면 어떤 목적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지 않을까 해요.

한정림 : 프로세스 아트인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하네요.

질문자1 : 아까 말씀이 나와서 연결해서 질문을 하자면, 개인적인 질문인데, 이게 꿈을 기준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정림 : 꿈하고 현실하고 막 섞여있어요.

질문자1 : 이게 꿈이라는 것과 유사한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맨정신이 아닌 것과 같은.

한정림 : 이것들은 꿈에서 바로 깨서 쓴 것들이라 괴발개발 쓰여진 것들도 있어요. 제가 영어로 꿈 기록한 것이 있어요. 영어로 처음 꿈을 꾸고 꿈에서 깨기도 전에 영어로 쓰느라 어려웠어요. 취중에 쓴 것도 있어요. 저는 꿈 자체를 굉장히 현실에서 결핍된 무언가를 메꿔주는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핍된 무언가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매개로서의 꿈 말예요.

질문자1 :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한정림 : 묘사한 것도 있구요. 상황 전체를 깨자마자 메모를 하기도 하구요.

김인선 : 그런데 왜 이미지로 안보이고, 기록을 하세요?

한정림 : 그림으로 그린게 조금밖에 없네요.

질문자1 : 꿈이란 것이 재해석 된 것으로 봐도 되나요?

한정림 : 어느 정도는요.

질문자4 : 그림하고 메모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한정림 : 제가 과거에 했던 작업들인데요. 연관성이 있어서 그림과 메모를 붙였습니다. 그냥 메모만 있는 것도 있고, 메모랑 같이 있는 것도 있고요. 제 작업에서 시간성이라는 것이 크

게 자리를 잡고 있기에 그렇게 작업했습니다.

김인선 : 이 액자도 손으로 만드신 거예요?

한정림 : 오래된 액자를 썼습니다. 이걸 제작을 한거고요.

김인선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마무리 하고 리셉션하면서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